아름다운동행, '지속가능 나눔' 본격화

1월 28일, 2026년 신년기자간담회
체육 인재 지원·NGO 공모 추진
탄자니아 농업대학 10주년 기념도
법오 스님 "나눔의 길 흔들림 없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아름다운동행이 1월 28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사업 방향과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임이사 법오 스님이 운영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2026년을 '선순환 나눔 원년'으로 삼고 국내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장기 지원 체계를 본격화한다. 체육 인재 성장 지원사업과 NGO 공모사업이 새롭게 선보이는 한편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개교 10주년을 계기로 국제개발과 수행·교육을 결합한 불교형 지원 및 포교 모델도 한층 확장할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은 1월 28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사업 방향과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운영 기조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국내외 사회적 약자 중심 지원 강화 △국제개발 및 인도적 지원 확대를 제시하며 단발성 후원을 넘어 삶의 변화를 이끄는 구조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체육 인재 성장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을 지속하기 힘든 중·고등학교 체육 유망주를 발굴해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최대 6년간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지원한다. 학교와 관련 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재능의 성장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사업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희망플러스',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위시박스', 저소득층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책가방 보내기' 사업도 지속된다.

'NGO 공모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사회복지, 환경, 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역량있는 비영리기관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변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현장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를 통해 복지·환경·국제개발 영역에서 불교계 공익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민간 비영리 영역과의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경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글로벌 자비나눔도 확대한다.

해외 사업의 중심에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있다. 2016년 개교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 자립을 이끄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현지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지난 성과를 돌아볼 예정이다.

농업기술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탄자니아 법당 '보리사'를 중심으로 선명상 프로그램도 체계화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 운영되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이론 소개부터 올바른 자세, 호흡법 안내, 실제 명상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내면 성장을 돕는 수행 프로그램으로 현재 현지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아름다운동행의 설명이다.

국제 인도적 지원도 확대를 위해 튀르키예 이스켄데룬 지역 생활 개선 지원에 나선다. 조계종은 2023년 대지진 이후 이스켄데룬 지역에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거처인 '한국마을'을 조성했으나 임시 거주 장기화로 여전히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월부터 12월까지 이스켄데룬 '한국마을'에 음수대 설치, 청소년 학습기기 후원, 취약 가정 자립성 회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네팔 산간 지역에는 교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돌포 지역으로 티베트 아래 산간 지역으로 불자들이 많은 곳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와 재건 지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2026년은 자비가 일회적 도움을 넘어 삶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 되는 해"라며 "한 번의 도움이 아닌, 지원 이후에도 삶 속에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복지재단, 라오스 환아 치료비 1억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월 26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국제 소아암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1월 26일, 라오스 '소아암의날'
환아에 후원품 전달 쾌유 기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이 1월 26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국제 소아암의 날(International childhood Cancer Day)' 기념행사에 참석,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1억원을 전달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라오스 환아들과 가족들을 격려했다. 또 라오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협력단체들을 만나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아이들의 아픔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고통"이라며 "재단을 비롯해 한국의 많은 후원자들이 늘 아이들 곁에 함께하고 있으니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병마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도륜 스님은 다음날인 1월 27일 재단 라오스 지부를 방문해 지부를 이용하는 환아들을 격려하고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월 28일에는 지구촌공생회, 새마을재단, 굿네이버스 라오스 지부 등 국제협력단체를 방문해 의료·교육·지역개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임은호 기자

고랑랄 다스 인도 대사 "국민 평안 함께"

1월 29일, 진우 스님 예방서
불교 교류 확대로 우호 증진



고랑랄 다스 신임 주한 인도 대사가 1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과 인도 간 불교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진우 스님은 "인도가 힌두교 중심 국가임에도 모디 총리를 중심으로 불교 성지 복원과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순례자들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고랑랄 다스 대사는 "인도가 불교유산을 지닌 나라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국민 대다수는 힌두교인이지만, 불교의 전통과 가치는 인도 사회 전반에 깊이 녹아 있다"며 "불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교통 인프라와 연계해 불교 성지를 재건하고 불교를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인도는 세계 정신문명의 원류로, 종교와 철학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수행의 핵심인 '선' 역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진 전통"이라며 "조계종에서도 '선명상'을 세계인에게 알림으로써 마음 평안과 평화로운 세상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고랑랄 다스 대사는 "마음 평안은 종교가 필요한 이유이자, 세계를 통합시키는 힘"이라며 "조계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문화·철학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충청 불교계, '권역 전법 협의체' 구성 공감

'포교역량 결집대회' 성과 점검
"행사 긍정적…소통 강화 과제"



대전·세종·충청 불교계가 지역 단위 포교의 한계를 넘어 권역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충청권 3개 교구본사는 1월 22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22일 세종 광제사에서 열린 '2025 대전·세종·충청 포교역량 결집대회 – 1250인 아라한 야단법석'의 성과를 토대로 이를 지속가능한 전법 사업으로 잇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부대중 결집대회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열린 대규모 포교 행사로서 권역 단위 포교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체험 부스와 문화행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청년·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다만 행사 준비 과정에서 교구와 사찰 간 사전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고, 행사 취지와 목적이 실무 단위까지 자세히 공유되지 못한 점은 과제로 지적됐다. 인원 참석과 역할 분담, 교통 지원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총무원 포교국장 도진 스님은 "행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주사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구 간 협력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권역 전법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포교 사업을 기획하고, 교구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충청권 불교계는 사부대중 결집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권역 전법 협력 논의를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포교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6학년도 신(편)입생(학점은행제)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료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제출서류 | ◈수료과정 :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일정 | 2026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6년 3월 첫째주 3월 3일 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영산재보존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3. 출가승려(법계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동방대학 2년졸업후 옥천범음대학 편입 하여 4학년 졸업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향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